현불 논단

# 위드코로나와 三學



법장 스님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험난한 위드코로나로 가는 길**
**제약들 풀리며 3000명대 확진**
**격변기, 이기적 행동은 위험해**

**계 · 정 · 혜 가르침 필요한 시기**
**배려하고 자기 자신에 집중하면**
**바른 지혜는 자연스럽게 생겨나**

**위드코로나 상황서 삼학 가르침**
**행복, 희망의 피안으로 이끌 것**

도심의 길가와 산사의 도량을 온통 노란 빛으로 물들이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안겨주던 가을이 어느새 지나가고 삼동의 추위를 맞이할 동안거가 입재했다. 언제나 그렇듯 시간의 무상함과 속도는 우리를 아쉬움에 빠지게 한다.

이번 동안거는 여느 때와는 다르다. 지난해 동안거는 코로나가 정점이었던 어수선한 분위기였다면, 이번 안거는 코로나를 포용하기 위한 새로운 분위기이다. '위드코로나', 표현 그대로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이제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기 위함이 아니라 코로나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함께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 새로운 일상으로의 첫걸음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다. 위드코로나가 발표되고 여러 제약들이 풀리면서 그동안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사람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왔고, 그 결과 현재 하루 확진자수가 3000명대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갱신해가고 있다. 그렇기에 일부에서는 다시 봉쇄를 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격변기에 자신만을 생각하는 행동은 무엇보다 위험하다. 우리 모두는 아직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누구라도 피해갈 수 없다. 이러한 현실의 모습은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인과응보와 유사하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늙어 병들고 죽지만 누구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또한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으로 저지른 행동과 말과 생각이 그대로 업이 되어 다른 누군가가 아닌 자신에게 고스란히 되돌아온다.

그렇기에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진 우리를 이끌어주시기 위해 바로 '나' 자신을 다스리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르침을 설하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오늘 그 가르침이 다시금 절실한 시기이다. 팔만사천의 가르침 중 바른 마음가짐과 행동에 대해 설하신 것이 바로 계(戒) · 정(定) · 혜(慧)의 '삼학(三學)'이다. 계는 바른 계율과 도덕, 정은 선정과 집중, 혜는 지혜로운 삶을 말한다. 이 삼학은 단순히 배운다는 개념이 아니라 몸과 마음에서 자연스레 나오는 습관과 같이 자기 스스로를 물들여 어떤 상황이든 그 행동이 무의식중에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 가르침을 지금에 활용할 때 먼저 '계'는 개인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을 버리고, 주변을 배려하며 함께 이 시기를 극복하려는 바른 생각과 행동인 것이다. 즉 배려하며 착하게 살자는 의미이지만, 이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에 '세 살짜리 아이도 알지만 팔십 노인도 행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다. 자신의 하루 속에 항상 발밑을 바라보듯 주변을 살펴보고 자신으로 인해 불편함을 주는 일은 없는지 확인하는 일만 하더라도 이 '계'를 바르게 행한 것이다. 그리고 '정'은 바른 집중이란 의미로, 바로 자신의 직업과 생활에 집중하는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일상은 상당히 어그러졌다. 많은 분들이 생계가 어려워질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젊은 세대들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바로 자신이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를 스스로에게 솔직히 물어 그 일에 집중하여 매일을 보낼 때 비로소 작은 행복을 얻을 수 있고, 다시금 희망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혜'는 '계와 정'을 바르게 실천할 때 자연스레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즉 지혜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위로부터 인정되고 존중받을 때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힘들게 한걸음을 내딛어 일상으로 나오게 된 지금 어리석게 자신만을 생각하며 이기적으로 보낸다면 스스로에 의해 다시금 기약 없는 외로운 현실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충분히 힘들고 외로운 2년을 견뎌왔다. 간신히 내딛은 한걸음에서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나와 남을 함께 화합하여 큰 한걸음을 내딛으며 내일로 나가야 한다. 위드코로나라는 안개길 속에서 삼학의 가르침은 바른 나침반이 되어 우리를 행복과 희망의 피안으로 이끌어줄 것이다.

社說

## 국회, 차별금지법 제정 미루지 말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이다. 그러나 이 헌법은 조항에만 머물러 있다. 대한민국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제정되지 않았기에 더욱 씁쓸하다. 2007년 처음 제출된 이래 수차례 무산됐던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회 심사기간이 2024년 5월29일까지 연장됐다. 14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반복된 '나중에'의 연장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나서온 조계종은 11월24일, 종단 차원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는 차별과 혐오가 없는 세상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성명은 심사기간 연장 이후 종교계에서는 처음으로 발표한 것이라 더욱 의미 깊다.

조계종은 지난 수년간 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모두가 평등하고 차별되지 않는다는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격주 기도회, 국회 둘레길 오체투지 등을 진행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나서왔다.

때문에 이번에 발표된 성명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조계종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지금도 이미 늦었다. 누군가에게 절박한 오늘에 언제까지 정치권은 '나중'이라고만 할 것인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는 것은 가장 보편적인 가치인 인간의 평등을 차별하는 것이다. 국회는 차별금지법에 마음을 모아 헌법에 명시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할 것이다.

## '대청봉' 경계 논쟁 당장 멈춰야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 소유부지이자 설악산국립공원 상징인 '대청봉'의 경계를 두고 속초시와 인제군, 양양군 세 곳 지자체가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황당함을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땅주인을 배제한 채 권한 없는 자들이 땅을 두고 싸우는 꼴과 다르지 않다. 대청봉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지자체 세 곳이 대청봉의 소유를 주장하고 있으니 이를 보는 불자들의 심경은 말 그대로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법적으로 부지의 경계정정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과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강원도 역시 이번 논란에 대해 같은 절차로 지적공부가 정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애초에 신흥사를 제외한 논쟁은 어떤 결과를 도출하더라도 불법 혹은 무효가 되는 셈이다. 이토록 명확한 경계 정정기준이 있음에도 왜 지자체들은 토지소유권자인 신흥사를 배제한 채 무의미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지 짚어볼 문제다.

우선 지자체들이 설악산국립공원 내 부지라는 이유로 대청봉을 국가소유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국립공원에 편입됐다고 해서 신흥사의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신흥사는 되레 국립공원 부지로의 강제편입으로 인해 재산권의 침해를 감내하고 있다. 조계종이 세 곳 지자체에 "신흥사 소유지인 대청봉을 둘러싼 논쟁을 멈추고 신흥사에 참회하라"고 촉구하는 이유다. 속초시와 인제군, 양양군은 "지자체라면 무의미한 경계논쟁보다 국립공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존,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보상과 불편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공력을 쏟아야 한다"는 조계종의 일침을 무겁게 새겨야 할 것이다.



담마끼띠 스님의
**다문화법당서 보낸 편지**

# 이주노동자 건강에 관심을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이주 노동자들은 모국에서 건강 검진 결과 '정상' 판정을 받은 후 한국에 일하러 들어오게 됩니다. 이는 의학적으로 과거 질병이 없는 '정상', 즉 건강한 분들만 한국에 들어옴을 입증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열악한 숙소 환경과 과도한 업무 등에 장기간 노출되다보면 건강에 서서히 문제가 발생됩니다. 영양, 휴식의 결핍은 결국 질병을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다행히 한국은 보건의료 체계가 비교적 잘 돼 있어 질병에 걸린 이주노동자가 병원 진료를 제대로 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누구나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은 지당한 일이지만 대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은 아파도 병원에 안 가려고 합니다. 그 원인은 두 가지로 파악됩니다. 하나는 병원에 가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또 다른 하나는 진료를 시행하는 병원에서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스리랑카 등 동남아시아의 의료제도가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스리랑카의 국립병원에서는 누구나 무료로 진료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수술과 검사를 위한 기다림의 시간을 더욱 길게 만듭니다.

이러한 긴 기다림의 불편함으로 인하여 병원에 가는 횟수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모국의 상황에 익숙해진 그들의 생각과 행동은 한국에 나와서도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그들의 '병원에 안 가는, 병을 참는 습관'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여러 의료 교육 안내와 공지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회사의 문제도 있습니다. 몇몇 회사에서는 이주노동자가 아프다고 하면, "그냥 소주 먹어", "네가 고기를 잘 안 먹어서 그래" 등의 반응을 보입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나 치료를 권유하는 회사들이 드물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 노동자들은 병원에서조차 무시와 차별,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며, 가슴 아프게도 코로나19 확산 후 또 다른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개선됐지만 지방 병원에서 쉽게 외국인들이 접근하여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젊은 나이에 타국에 와서 모두가 꺼리는 3D업종에 종사하며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생활과 건강에 대한 교육은 필수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우리가 갖게 되는 최고의 이득은 건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을 잃는다면 다른 어떤 이득이나 이익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주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이가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충남 아산 마하위하라사원 주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4, 8216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해양심층수 100%
해양 高 미네랄
MQ 눈소금

瞬間空中結晶製鹽技術
동해바다 수심 605m
청정 해양심층수를 길어 올려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로
찰라의 순간에 수분을 증발
소금을 공중에서 눈처럼 내려
쌓이게 하는 첨단기술로 만든
깨끗한 미네랄 엠큐눈소금









深層水의 미네랄을 가득담은
기적의 소금
(순간공중결정제염)



엠큐 눈소금의 특징
- 해양심층수 100%로 만들어진 해양미네랄 100% 소금입니다.
- 청정 해양심층수를 마이크로필터로 걸러서 만들어 미세플라스틱 불검출 확인 소금입니다.
- 골다공증 예방, 키성장에 도움이 되는 칼슘이 다량 들어 있습니다.
- 신경전달의 핵심 미네랄인 마그네슘,칼륨,칼슘,나트륨이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 소화와 영양흡수를 돕는 나트륨, 염소 성분 등이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 수십가지 미네랄이 미네랄 부족에 시달리는 현대인이 건강회복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나트륨 성분의 체내 배출을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나트륨 축적의 위험성이 없는 소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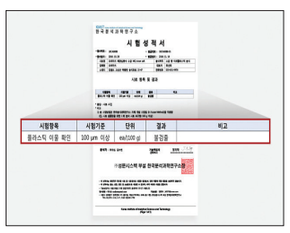
※500ml 생수에 소금3g을 타서 드시면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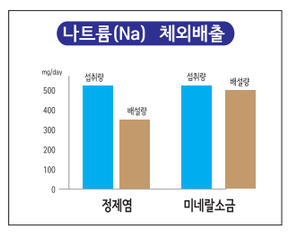
| 구분 | 일반정제염 | 엠큐눈소금 (100g 당) | 차이점 |
|---|---|---|---|
| 염화나트륨 | 99.52% | 75.39% | 24.13% 낮음 |
| 나트륨 | 38.99g | 29.64g | 9.35g 적음 |
| 마그네슘 | 10mg | 3,893mg | 389배 많음 |
| 칼슘 | 30mg | 988mg | 32배 많음 |
| 칼륨 | 20mg | 992mg | 49배 많음 |
| 기타 | 표층수 | 해양심층수 | |

■ 자료 출처 명기
나트륨배출 촉진 : 출처 : KBS 생로병사의 비밀
미세플라스틱 불검출 출처 : 한국 분석과학연구소
소금성분 출처 : 한국기능식품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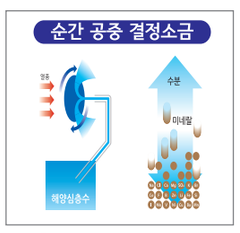
수상 경력
- 2019년 9월 대평남종현 발명문화상 수상
- 2019년 10월 GTI국제투자무역박람회 금상 수상
- 2020년 6월 장영실 국제과학문화상 수상
- 2021년 7월 2021년 대한민국을 이끈 혁신리더 50인에 선정

특허
- 10-1844017 : 해수에서 미네랄 분리추출
- 10-0885175 : 미네랄 워터와 미네랄 소금 제조기술
- 10-1681672 : 나무의 유용물질 함유 미네랄 소금제조기술
- 10-0548295 : 미네랄 해수소금제조장치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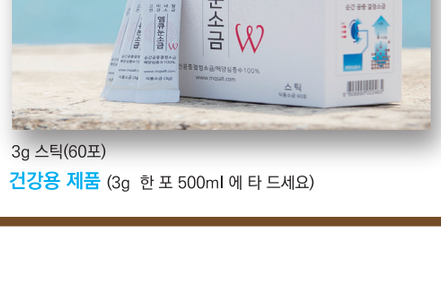

미세플라스틱불검출 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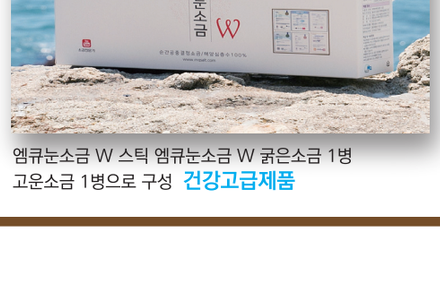
나트륨배출 촉진확인



최첨단 특허제조기술



3g 스틱(60포)
건강용 제품 (3g 한 포 500ml 에 타 드세요)



엠큐눈소금 W 스틱 엠큐눈소금 W 굵은소금 1병
고운소금 1병으로 구성 건강고급제품



고운 소금 2병 굵은소금 1병으로 구성된 세트제품 요리등에 적합

문의 02-732-1520 마하몰 www.mahamall.co.kr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전 제품 롯데택배 무료배송 (도서산간, 오지 등 일부지역은 배송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